

COLUMN

##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 전략과 기술혁신

홍유수\*

중국의 산둥반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가공무역에 치중해온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와 중국 내 경영환경의 변화로 큰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계 제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한 중국, 개도국 제1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인 중국, 기술자립을 국가전략의 제1 목표로 선택한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저임금 가공수출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제1의 무역·투자 대상국이며, 중소기업의 투자 비중이 50%를 넘는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경쟁·협력 대상국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과제는 분명하다. 이와 같은 중국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 진출 전략의 급 전환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이나 장차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

먼저 한국의 중국 진출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자. 2006년의 경우 한국기업의 대 중 투자는 총 2,300건, 33억 달러에 달하였다. 1990년대 말의 외환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 대중투자는 급속히 늘어 2001년의 6억 달러에서 2004년의 22억 달러로, 다시 2006년에는 30억 여 달러에 이른 것이다. 최근 대 중투자가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괄목할 만하다. 현재 중국에는 2만 여개의 대·중·소 한국기업들이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KOTRA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62%가 산둥성 지역과 화북 및 동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내륙지방에는 6% 미만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광둥성 등 남부 연안지역에 5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대 중국 전체 외국인투자 지역분포와 남북 방향 면에서 반대 현상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와 같은 한국과의 근거리 지역에 대한 쏠림 현상은 조금씩 완화되고

\* 글로벌혁신경제연구소장(e-mail: yshong@kiep.go.kr)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는 달리 대기업들은 장강 삼각주 지역으로의 진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느린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투자 목적에 있어서, 점차 중국 내수시장 진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의 경우는 이 현상이 두드러진다. 대기업은 약 50% 이상이 내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중소기업은 50% 이상이 수출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대 중국 중소기업의 건당 투자 규모가 대체로 소규모란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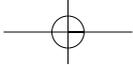
최근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과 중국의 경영환경 변화가 과연 중소기업들이 중국 진출 및 중국에서의 경영활동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가? 중국의 외자유치 목표가 고속경제성장의 뒷받침에서 지속가능(환경문제고려)한 발전지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일반우대에서 산업별 우대로 외자유치 정책이 변하고, WTO 가입 이후 정책주도로부터 시장주도로 정치기조가 바뀌고 있으며, 따라서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기업소득세법, 노동계약법, 반독점법 등의 제정을 통해 공정경쟁 및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공해 및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 부동산 관련 규제 등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무역을 억제하고 첨단기술산업 관련 외자유치를 장려하는 것 또한 변화의 한 축으로 파악된다. 한 마디로 기업하기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고, 단위생산비가 증가하며 기술이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는 비단 외국계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중국 자국기업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법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전국공상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연간 약 15만 개의 민영기업이 생겨나는 동시에 약 10만 개가 사라진다. 민영기업의 60%가 5년 안에 파산하고 85%가 10년 안에 파산한다. 중국기업가의 84%가 기업경영이 매년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경영 철수를 생각하는 한국기업보다는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증가하는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며, 경제적 동반자이며, 기회의 땅이다.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서 다음 두 가지 방향을 강조하고자한다. 첫째, 투자 대상지역의 다변화이다. 특히, 연안지역에서 중부지역으로 안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중국의 중부지역은 산서성, 허남성, 호북성, 호남성, 안휘성, 강서성 등 6 개 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산서성은 투자여건에서 대체로 뒤떨어져 있으나, 그 외 5 개 성의 투자여건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안경제특구 지역에 진출했던 외국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연안지역의 경영여건 악화로 중부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상당수의 우수한 다국적기업들이 무한, 정주, 장사, 합비, 난창 등의 경제특구에 진출해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본기업들은 아예 중국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투자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 주목된다. 금년 초에 JETRO는 '중국내륙중서부투자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일본기업의 중서부지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중서부 진출은 내수시장 개척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약 5



년 정도의 적응기간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된다. 통상 이와 같은 저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인바, 중서부 지역 진출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동반 진출, 혹은 중국내 기업들과의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100% 독자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중국 혹은 타국기업과의 합작투자 진출은 꺼려하는 방법이겠지만, 전략적 제휴 없이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로 강조하고자 것은 저임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진출의 시대는 끝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지속적인 기술혁신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아예 진출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기업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 또한 한국기업으로 부터의 기술이전이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기술유출의 위험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강력한 전략적 제휴의 도구는 기술력이다.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계적 생산네트워크 및 글로벌가치사슬(GVC)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된다면, 그 장래는 탄탄하다.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경제·산업·기술 협력관계를 강화하자. 수년 내로 체결될 것이 예상되는 한·중 FTA는 이와 같은 기회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정부의 수많은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제고되지 않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과연 어떻게 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한국의 중국진출 성패 역시 한국경제의 성장과 마찬가지로 결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